

참 제자 마을 소식지 창간사

어둔 밤에도 노래하는 새

구 요비 읍 신부(가톨릭대 영성담당, 프라도사제회 한국 대표신부)

내가 살고 있는 혜화동 대신학교의 숲 속에는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다.

그 중에는 소쩍새 한 쌍이 있는데, 이들은 봄이면 이 숲을 찾아와 머무른다.

두 눈이 부엉이처럼 크고, 그렇게 귀티가 나는데 지금은 회귀 중 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나는 사실 이 새를 몹시 싫어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울음소리를 듣노라면 어머님께서 어릴 적에 자주 들려주시던 한 어린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한이 담긴 소쩍새의 슬픈 사연이 회상되어, 마음이 아려 오곤 하기 때문이다.

지난 봄에 이 놈들은 유난히 울음소리가 컸던 것 같다.

어느 날 밤 나는 구슬프게 우는 새소리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일어나 숲 속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하였다.

¡애들아, 제발 그만 울고 잠 좀 자자! 다른 새들은 낮에 실컷 울고 밤에는 곤하게 자는데 너희들은 왜 이리 극성을 떠는 거냐?¡

그랬더니 이 놈들은 이렇게 맞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흥, 신부님은 그래 제가 지금 울고 있는 줄 아세요? 불어에서는 새가 운다고 하나요? 아니면 새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던가요?¡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쳤다.

¡아니 그러면 자네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지! 아하, 그대는 어둔 밤에도 노래하는 새란 말이지!¡

그날 이후로 소쩍새는 조금씩 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새가 밤마다 부르는 노래 소리가 담고 있는 신비를 이해하려고 자주 숲 속을 찾아가 거닐곤 하였다.

특별히 인간의 눈과 가치로 볼 때,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 안에 깃들여 있는 신성함(神聖性)에 대한 나의 신앙적인 확신이 희미해지고 회의가 들 때면, 저 소쩍새의 현존과 노래 소리는 내 심금을 울리는 말씀(Logos)처럼 다가 온다.

지금은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을 맞이할 임종의 시간을 준비하는 방 선녀 카타리나 자매의 병상을 찾아 이 분의 커다란 두 눈을 바라보다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 이 자매님의 모습이 저 소쩍새 처럼 아주 귀티가 나지 않는가? 이 자매의 삶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평생을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아온 이 자매가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온 생애는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온 우리에게 많은 빛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가 발간하는 ¡참 제자 마을¡ 소식지가 바로 이런 인생의 어둔 밤 안에서 신앙이 주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친교(Communio)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양업 문화 교육원 영성 담당 지도 신부 >>

양업 문화교육원 (참 제자 모임) 창간사

진 교훈 도마(양업 문화교육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마침내 양업 문화교육원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뉴스 레터가 발간되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양업 문화교육원은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에게 인성교육과 전통문화교육에 비전을 주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인성교육과 전통문화교육에 비전을 준다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들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롭게 전통적인 문화가치들을 해석하고 이를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금사상, 즉 물신(物神)이 지배하고 있는 반 생명적인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신적 혁신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새롭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새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통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인간존중 사상을 현대 문화생활에 적응시켜 절차탁마 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거부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있는 죽음의 문화로부터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문화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적인 정신운동들은 언제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들의 새로운 실현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되 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서양의 헬레니즘, 문예 부흥 운동도 전통을 되 살리려는 일종의 복고운동(復古運動)이며, 동양의 신유학도 원시유학의 근본정신을 바로 찾자는 운동이며, 불교유신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述而不作 信而好故(서술하긴 하되 지어내지 아니하였으며 믿고서 옛 것을 좋아했노라) 라고 말씀 하였고, 예수님도 “내가 옛 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복음의 전통에 따라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재발견되는 가능성을 현재에 되살려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발전과 변화도 그것이 전통 문화로부터 단절되면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양업 문화원은 최근에 기존의 활동 외에도 ‘참 제자 마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장차 현대사회의 쇄신을 위한 그리스도 영성화의 교육의 장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 보려는 것이며, 동시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장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

박 광용 아우구스티노

지금 한국교회는 최양업 신부님을 위시한 124 위의 시성 시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참 제자 모임’은 최양업 신부님이 걸으신 길을 본받아 ‘문화 영성’과 ‘교육선교’를 바탕으로 하여 활동하는 양업 문화 교육원’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는 작년과 올해에 최양업 신부님 유적지를 순례하였습니다.

그러나 5 곳 중에서 안양 (과천) 수리산 성지, 언양 (울진) 죽림굴 성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공동체 이곳 저곳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참 제자 모임’ 형제 자매님들 안테나에는, 현재까지의 시성 시복 추진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신자 분들의 기도 등, ‘시성 시복에 대한 정성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걸려 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요비 지도신부님과 진 교훈 원장님께서, 양업 문화교육원에서는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전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이 글은, 이런 저런 기회에 교회사 관련 문헌 및 연구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참 제자 모임’에서 형제자매님들과 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에 대한 글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본 것입니다.

1.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

최양업(崔良業)은 신부님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본명은 토마스 입니다. 어른이 되신 이후 쓰신 이름인 관명(冠名)은 최 정구(崔鼎九)라서, 배론 성지의 묘비는 ‘최 정구’ 이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

순교자, 이 성례 마리아의 6 형제 중 장남으로, 1821 년 3 월 1 일 충청도 홍주 누곡 (다락골, 달래골 ; 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누동 새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부친도 역시 홍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태어나신 누동 새터를 개척하여 마을을 만들고, 이곳 이정 (면임 밑에서 지방행정을 담당 하는 말단 직책, 현재의 ‘이장’급) 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최경환 성인께서 박해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셔서, 서울 근교에 교우 촌을 개척하면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시던 중, 1836 년 12 월 아마도 인천의 부평에서 살던 때에, 김대건, 최방제와 함께 모방 신부님 앞에서 신학생 선서를 하시고, 곧바로 중국으로 떠나는 여항덕 빠치피코 (한국명 유방제) 신부님을 따라서 중국 요동땅을 거쳐서 마카오 신학교로 유학을 가서 신학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3 년 뒤인 1839 년, 기해 박해로 해서 양친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49 년 4 월 15 일 중국 상해에서 강남 지역 마레스카 주교님에게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1849 년 5 월 경부터는 중국 요동의 양관(陽關)에서 만주 교구장 서리 베르뇌 주교님의 명을 받아, 요동 양관(陽關)의 ‘성 후베르트 성당’, 차쿠(岔溝)의 ‘눈의 성모 성당’ 등에서 성직을 수행하셨습니다.

1849 년 12 월에 마카오를 떠난 지(1842 년 7 월) 7 년 만에 비로소 고국에 귀국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중앙 정부의 박해가 거의 없었던 철종 연간 동안, 주로 교우촌 신자들을 위하여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1853 ~ 55 년 경에는 주로 진천의 배티를 중심으로 하여 사목 활동을 하셨는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산간 벽지, 그리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 전라, 충청도 지역이 현지인 성직자셨던 최양업 신부님의 담당지 였습니다. 그 전후 시기에, 15,000 여명 교우 중 충북. 강원 일대

(교우촌) 4,000 여명의 신자와 10 여개의 공소를 담당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1858 년 10 월경에는 배티 지역을 뽀띠니콜라 신부에 맡기고, 산간 교우촌, 경상도를 주로 담당하셨고, 1860 년 포도청에 의한 ‘경신 박해’ 때는 울진 죽림의 굴속에서 몇 개월 피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861 년 6 월 15 일 경 경상도 전교를 마치고 상경 중, 문경의 교우촌에서 과로로 선종하셨습니다. (배티까지 오셔서 선종하셨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유해는 현재 배티 성지 근처에 가매장 되었다가, 그 해 11 월경 교구장 베르뇌 주교에 의해 신학교가 있었던 배론에 묻히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사적지>

다락골 -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 출생지, 고향
수리산 - 경기도 안양시 안양 4 동 담배촌(뒤뜸이-교우촌) : 가족들의 마지막 거주지
배티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곡리 : 사목 중심지.거주지(동굴 교우촌)
죽림굴 - 경남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 말년 사목지.
경신(1860) 박해 때 숨어 지내던 곳
배론 - 충북 제천군 봉양면 구학리 : 묘소

2.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

최양업 신부님은 박해 시대에 이 땅에 파견된 현지 출신인 조선인 사제로서, 특히 사목적인 모범을 보이신 증거자로서의 ‘선교’ 영성이 그 바탕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보통 ‘말씀’에 대한 인식 방식과 그에 따른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과 형제들을 따라갈 만한 공훈’, 곧 순교 선조들을 따르겠다는 원의를 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회 창립자 중의 한 분으로서 아시아의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과, 시토회 창립자 중의 한 분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유럽 이곳

저곳으로 이단에 빠진 교우들을 설득하도록 파견되어 선교 활동을 하신 베르나르도 성인을 모범으로 삼아, 선교 활동에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 게다가 최양업 신부님의 첫 사목지는 중국 요동 개주(開州)의 양관 지역이라고 하니,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아야 하는 중국 만주지역 선교, 곧 ‘북방 선교’를 출발시키신 한국인 성직자이시기도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조선을 구원으로, 개화로 이끄는 길이라고 판단하시고, "만일 필요하다면 피를 흘릴" 각오로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성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본인이 ‘교우촌’ 출신이었으므로, 교우촌 영성을 돌보는 사목에 특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억압받고, 물질적, 이기적 추구를 떠난 삶을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이 땅을 복음화하려는 열망은, 당시 조선 현실에 맞는 토착화 선교, 곧 오늘날 말로는 ‘문화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는 빈곤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무지한 일반 신자들의 교육도 중요했고, 복음과 문화의 불합치 문제로 해서 양반과 부녀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에,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 문화 전통에 맞는 한글 교리서가 빨리 출판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셨고, 당시 조선인 생활 습관에 맞추는 ‘천주가사’를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곧 최양업 신부님은 가난, 순종, 인내로써, 참으면서 기다리는 ‘겸덕’의 삶을 사심으로써, 박해 중에 있는 당시 교우들에게 훌륭한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과 어머니이신 순교자 이 성례 마리아의 시성 시복 추진이 성공한다면,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순교성인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워 전하는(父傳子習 母傳女習) 모범적 성 가정으로서도 우리 교회공동체에서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3.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므로... 불 같은 열성으로 (순교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싸우는 저 전쟁에 나는 참여 하지 못 하였습니다”

-“고난과 수고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 되어,
그리스도 고난에 부족한 것을 기워,
구속 공부를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하신 선조들, 특히 부모님을 따르는 순교 원의를 깊게 지니고 계셨습니다.

-“외교인에게 직접 전도하는 것은 교우도 하기 어려운 일,
우리 신부들에게는 불가능 한 일입니다”

“저는 조선에 들어온 후... 언제나 시골 방방 곡곡을 돌아 다녔습니다...

(불과 몇 개월 동안) 거의 오 천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산골에서 믿음을 지켜, 가난한 삶을 받아들인 ‘교우촌 영성’을 돌보고 키움을 주 임무로 인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하는 고통이 아직 미약합니다.

청한 바를 기다리는 기간도 아직 짧습니다”

-“조선엔 참된 겸덕(謙德·겸손한 덕성)의 관념이 없습니다”

-“항상 영원히 희망할 것입니다”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녹방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께서 “저희는 시련과 고통의 강물이 흐르는 약속의 땅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말씀 하신 대로, ‘영원히 희망하는’ ‘겸덕’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양업 문화 교육원 참 제자 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yangup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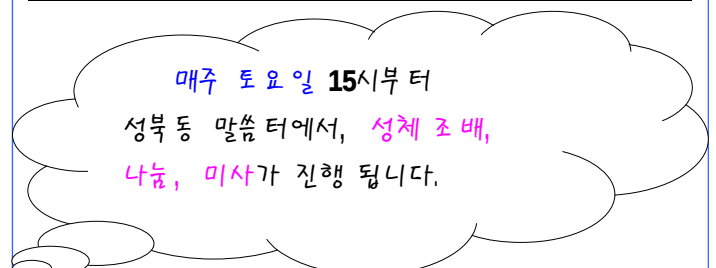
참 제자 마을 조성 신립자 현황(2007.6.16현재)

김 정임 제루뚜르다	백 상열
양 명신 토마스 아퀴나스	이 난호 짓다
진 교훈 도마	정 영란 마리아네스
양 인혜 루시아	전 혜은 마리엘라
이 승신 미카엘	김 문희 엘리사벳
최 병준 요한	김 동성 베드로
김 지연 베리파스	김 정문 바오로
지 희용 토마스 아퀴나스	이 두봉 바오로
채 수형 부덴시아나	조 윤경 마리스텔라
박 광용 아우구스티노	신 경미 켄마
안 여주 올리엠타	곽 후근
김 기경 세라피나	조 치성 다미아노
홍 순숙 미카엘라	김 선규 바오로
남 성일 사도요한	백 남희 도미니카
김 영자 글라라	김 희순 아가다
최 선희 뿌리나	홍 한림 스킨라스티카
김 인순 엘리사벳	김 오순 마리아
윤 기련 아네스	이 상운 도미니코
최 창주 분도	안 상용 루카
최 광동	홍 양희 안토니오
박 수연 로사리아	원 동희 체칠리아
고 옥자 수산나	구 요비 욥 신부님
성 하영 프란치스코	권 순철
국 옥희 마리아	정 태진 안드레아
김 계순 가밀라	윤 조흠 루카
김 종환 베드로	김 연례 세실리아
방 선녀 카타리나	오 웅 요한
공 이임 모니카	노 말혜
방 대순	성 계순 까리파스
최 원철 베드로	박 병식 베드로
이 병주	김 숙자 가시미라
안 여현 엘리사벳	양 인숙 에밀리아

<신립 일자 순서>

계64명,신립액;377,500,000원,입금액;152,829,000원

* 박 수연, 노 말혜, 이병주: 전화,주소 연락바랍니다.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치매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과 자매 결연** ; 이웃 사랑의 실천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976-0117

팩스; 031-976-0116, e-mail ; thomyang@inteckor.com

<월별 신립 및 입급 현황> 2007.6.16 현재

년 월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월 입급액
2006.12	7	12,500,000	5	100,350,000
2007.01	43	227,400,000	29	24,295,000
2007.02.	7	16,200,000	32	11,797,000
2007.03	2	2,600,000	29	6,153,000
2007.04	2	1,100,000	26	4,771,000
2007.05	0	0	23	3,427,000
2007.06	3	6,700,000	11	1,736,000
계	64	377,500,000	155	152,829,000

*** 사랑의 유언 공정 증서**

지난5월8일 위암으로 투병 중인 방 선녀 카타리나 자매님이 56년 동안 절약하고 살아온 구로동 소재 빌라주택을 참 제자 마을에 유언 공증하셨습니다.

*** 포항 성모 자애원 방문 연기**

포항성모 자애원의 공사로 인하여 6월9일-10일 방문 예정이었으나 가을로 연기하였습니다.

*** 내포 성지 순례**

5월24일 44명이 참여한 충남 내포지역 성지순례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기리는 청양 다락골 성지, 진천 배티 성지, 가톨릭대 국사학과 박 광용 교수의 자세한 설명으로 알차게 하였습니다.

*** 김 영자(글라라) 교감선생님께서 금년 신학기를 맞아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여 고양시 중산동 고봉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 이 상윤(도미니꼬)/김 영자(카타리나)의 장남인 이 정민 비오 부제가 6월18일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7월6일(금) 오후2시 사제서품식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있사오니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 정민 비오 사제 서품 후 7월 8일(일) 11시30분에 구로1동 성당에서 첫 미사가 있습니다. 첫 사제의 강복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 제자 마을 하계 피정이 8월18(토) - 19(일) 1박 2일 예정으로 진행 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참 제자 마을 조성 임야 구입 결재 완료**

6월13일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 221번지 임야를 구입하고자 서울대 교구에 공문 제출하여 관리국장 신부님 - 염 수정 주교님 - 정 진석 추기경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느님 저 비행기 타고요

<윤 기련 아네스>

참 오래 만이어요

백 밀가루로 빚은 수제비 같은 구름 위를 날라가고 있어요

하느님과 가까워 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쩐지 기도가 잘 됩니다.

며느리 산 바라지 하러 호주 멜버른에 갑니다.

홍콩에서 비행기 갈아 탈 때 잘 돌보아 주세요

아들이 엄마가 홍콩에서 미아가 될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 할까요 기도 할 수 있는데